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국내 공공청사 내 도서관 현황과 부산지역 시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Basic Plan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y i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Focused on the Analysis of Library Current
State in Government Office and Citizen's Perception in Busan

강 은 영 (Eun Yeong 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부산시청사 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 |
| II. 국내 공공청사 내 도서관 현황 | V. 결론 |
| III. 부산시 시민인식과 요구조사 | |

요약: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지자체마다 다른 시설과 한 건물에 혹은 한 대지에 함께 건립되는 복합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1,468개관을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 SOC사업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 2025년까지 25개의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계획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복합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공청사 내 도서관 조성 역시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결합한 형태로 이러한 복합화 움직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의 기본 방향, 조직과 인력, 장서개발, 서비스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등 운영의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청사 내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이용자인식, 시민인식, 부산시청사

ABSTRACT: Recently, public libraries as complex cultural spaces are becoming a trend, and public libraries as complex facilities that are built in one building or one site are being highlighted. This can be seen as part of a policy to expand public libraries as part of the government's Living SOC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libraries in government office is also included in this movemen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excellent cases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government office in Korea and investigated citizens' perception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Based on this, a basic plan for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including basic directions, organization and manpower, collection development, and service programs (including specialization program), was proposed.

KEYWORDS: Public Library, Library in Government Office, Complex Cultural Facility, User Perception, Citizen Perceptio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 이 연구는 '부산시청사 내 꿈+도서관(가칭)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kang@silla.ac.kr / ISNI 0000 0004 6844 8725)

• 논문접수: 2020년 8월 25일 • 최초심사: 2020년 8월 25일 • 게재확정: 2020년 9월 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411-437,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411>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공공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2019년 발표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의 핵심 시설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인프라 확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하는 방식과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몇몇 지역대표도서관을 제외하고 신축되는 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문화시설과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건물에 조성되는 ‘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좀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 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개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복합화’의 한 사례로 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 내 조성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기존 청사 내 도서관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생활SOC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역시 생활SOC의 개념으로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지역 내 새로운 문화시설기반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현재 시점에서 2025년까지 25개의 공공도서관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부산시청 홈페이지). 이에 부산시청 역시청사 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진흥의 주요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독서진흥의 중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1층 로비 공간에 도서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현재 부산시청 3층에 면적 243㎡의 시정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자료·법령자료와 일반자료가 함께 소장되어 있고, 시청 내 직원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관외대출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2년간 이용자수를 일반시민 : 시청 직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8년 20,399명 : 36,473명, 2019년 14,013명 : 21,335명으로 나타나 직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부산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자들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1층 로비에 30,000권 규모의 장서를 구비하고 국내 최고 높이의 벽면서가를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3층 시정정보자료실도 개편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청사 내 도서관과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도·구청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사 내 유휴공

간을 활용한 도서관 조성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서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산시청이 위치한 연제구에는 2개의 공공도서관과 12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지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 공공도서관 인프라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청사를 활용한 도서관 조성은 청사 내 직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더 확대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시·도·구청 내 일부공간을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부산시의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시청사 내 도서관인 꿈⁺도서관(가칭)¹⁾의 운영 기본계획을 제시하여, 부산시청사가 시민들의 독서진흥과 문화교류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시·도·구청사 내 도서관 현황 조사

국내 시·도·구청사 내 운영 중인 도서관(의정자료실 제외)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컨셉과 특화 영역, 기본현황, 조직과 인력, 문화프로그램 현황, 장서구축의 기본 방향, 주된 이용자층 등을 조사하였다. 부산시의 협조 하에 모든 국내 시·도·구청을 대상으로 청사 내 도서관을 운영 여부를 질문하여 파악한 뒤,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9개²⁾의 청사 내 도서관으로부터 운영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내용 분석 결과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어 시설이 우수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성동구청 책마루 도서관, 경기도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와 시정담벼락,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등 3개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공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꿈⁺도서관(가칭)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다.

나. 꿈⁺도서관(가칭)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부산시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시청이 소재한 연제구 내 공공도서관 2개관(연제도서관,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꿈⁺도서관(가칭) 운영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600부를 배포하였으며, 연제도서관, 연산도서관 그리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시청 직원들의 경우 사내에서 별도로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600부 중 내용적으로 의미

1) 부산시청사 내 건립되는 공공도서관 네이밍(명칭) 공모전(2019년 12월)의 심사 결과, 최우수작인 '부산시청열린도서관'을 도서관의 공식 명칭으로 결정되었다.
2)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광천공공도서관,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성남시청 하늘 북카페, 성동 책마루, 시골북(Book)적 카페, 전북도청도서관, 판타스틱큐브·시정담벼락, 하늘도서관

가 없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60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꿈+도서관(가칭)의 운영 기본계획 제시

꿈+도서관(가칭)의 운영 기본계획은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을 기본 토대로 하고 타 지역 청사 내 도서관 현황조사 결과와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꿈+도서관(가칭)의 지향점, 조직과 인력, 장서개발, 서비스 프로그램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3. 선행연구

최근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다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복합화나 복합건물 내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공간의 복합화에 대한 문제는 건축 분야와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진행된 연구가 있다.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로는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복합화 현황을 조사한 연구(김영석 2014), 서울소재 복합시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인식을 조사한 연구(최문정, 서은경 2016),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을 미디어테크, 인포메이션 커먼스, 라키비움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등으로 나누어 이들이 기존 도서관과 어떤 형태로 융합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노영희, 김윤정 2019),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유형과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 연구(신영지, 노영희 2020)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 분야와 공간디자인 분야의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년대 이후 건립된 전국 공공도서관 중 복합화가 진행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유형을 파악한 연구(류태현, 고재민, 임채진 2013), 2010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중 복합화가 진행된 곳, 계획이 있는 곳, 계획이 없는 곳 등으로 분류하여 복합화된 사례와 유형을 조사한 연구(고재민, 임호균 2012), 동일부지에 1개 이상의 시설과 공공도서관이 복합화된 사례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서동훈, 임호균 2014), 지역대표도서관의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복합화 현황을 조사한 연구(최준혁 2019) 등이 있다. 특히, 건축 분야와 공간디자인 분야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도서관과 가장 많이 복합화된 시설은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도서관과 타 기관과의 복합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체로 전반적인 동향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과 관련한 복합화의 구체적인 사례나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는 향후 공공청사 내 도서관이 조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II. 국내 공공청사 내 도서관 현황

1. 성동구청 성동 책마루 도서관

가. 조성개요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성동구청 1층 로비공간에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구청 내 3층에는 무지개도서관이 있으며, 무지개도서관 자료는 대출 가능한 자료로 운영하고 있다. 성동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책마루 도서관은 총 3개이며, 책마루 1호인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행정공간을 넘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주민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기획되었으며, 관련 분야 공무원과 주민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청사 1층 로비 유휴공간(약 778㎡)의 대변신을 위해 수차례의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2018년 개관하였다. 구청 내 3층에 있는 무지개 도서관은 2006년 2월 성동구 공무원들이 이용하던 행정자료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무지개자료열람실로 운영하다가, 2009년 1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으로 승격되면서 전문화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새롭게 변화된 열린 학습,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자료(행정자료실에 소장하던 자료)는 무지개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나. 시설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하나의 공간을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계단마당은 1층 로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소규모 강연공간, 담소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 구경 행사를 대형 스크린으로 접하는 계단식 좌석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벤치이다. 둘째, 북웨이는 4m의 높은 천장을 활용하여 층층을 걸어 어린 시절 다락방의 기억을 담은 어린이 서재이다. 포켓 벤치와 무지개 색 스톨을 마련하고 어린이도서를 배치하여 아이들이 기대거나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셋째, 클라우드 서가는 북카페를 둘러싸는 형태로 창측에 조성하여 세 가지 크기의 박스를 퍼즐처럼 쌓은 공간이다. 최신 잡지, 기증도서, 어린이도서 등으로 채워져 있으며, 어린이들이 즐기는 공간인 북웨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넷째, 무지개라운지(비전갤러리)는 7개의 무지개 색으로 꾸며진 7개의 방으로 독서와 담소의 공간이다. 벽면에 조성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그림, 책, 공예작품들이 비치되어 있어 1-2명의 이용자가 개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포토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무지개아카이브(미디어과사드)는 서가높이 13.5m로 조

성된 책마루의 랜드마크로 구민 한명 한명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책을 기증받은 도서를 비치하여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마지막 무지개도서관 계단은 책마루 도서관과 3층 무지개 도서관으로 연결하는 곳으로 계단 층간에 마련된 서가와 벤치가 있어 잠깐 동안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외 플로어프로젝션, 디지털게시판, 빔프로젝트를 구비하여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고 도서관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동 책마루 도서관 출입구는 시청 민원실에서 도서관 내부로 이어지는 출입구와 시청 외부에서 도서관으로 직접 출입 가능한 출입구 2개로 두어 접근성을 최대화 한 것이 특징이다.

다. 조직과 인력

전술한 바와 같이,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성동문화재단 도서관 운영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성동구의 경우 1999년 성동구립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성동문화원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성동구립용담도서관, 성동구립성수도서관, 성동구립청계도서관 등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였으며, 2015년 성동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모든 공공도서관을 성동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성동문화재단은 성동구의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문화시설(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구립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성동 책마루 도서관에는 사서직 3명이 상주하고, 파트타임어가 주중 1명, 주말 2명 배치되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라. 장서와 프로그램

(1) 장서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단행본 11,134권(2019년 12월 기준, 3층 무지개도서관 장서 포함 총 40,000여권 수장)과 연속간행물 55종을 비치하고 있다. 매월 신간잡지와 신간도서를 구매하고, 2017년 12월부터 성동구청 직원과 구민, 학교,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등 주민과 함께 공간을 채워 가고 있으며, 관외대출을 실시하지 않으며 관내 열람만 가능하다. 관내 3층 무지개도서관과 달리 자료의 구분은 기존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과학·기술·컴퓨터, 인문·종교·역사, 교육·육아, 건강·취미·요리, 경제·사회·자기계발, 여행정보·에세이, 한국소설·한국수필과 시, 외국소설·외국수필과 시 등 총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 역시 포함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다른 사례와는 달리 성동 책마루 도서관 자료는 관외대출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구청 내 무지개도서관 자료만 대출이 가능하다.

(2) 프로그램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를 1) 소통·개방·문화·참여, 2) 지식·정보 함양,

3) 사회적 가치 실현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첫째, 소통·개방·문화·참여 컨셉의 프로그램으로는 '책마루 힐링콘서트', '성동생동 동아리 문화공연(생활문화 동아리의 통키다 공연)', '폭염재난대비 「24시간 무더위 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공간과 수면도구 제공, '성동 책마루와 함께하는 정오의 문화공연' 등이 포함되며 둘째, 지식·정보 함양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북 페스티벌'이 포함되며 셋째,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으로는 '소의계층 학생 대상 「학습 멘토링 사업」', 「주민 도서기증의 날」 개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 카페를 위탁하여 '사회적 약자 일자리 만들기'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마. 특징과 시사점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성동구청 1층 유휴공간을 '소통', '개방', '문화', '참여' 공간으로 구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열린도서관으로, 하루 평균 500-600여명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공간을 일반적인 도서관과 동일하게 구분하지 않고 6개의 컨셉으로 나누어 각 특징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고 용도를 준 것이 특징이며, 관내 미취업 청년 및 경단녀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 초기에는 구청 로비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인 도서관으로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었으나, 조성 후 지역주민 뿐 아니라 구청 직원들 모두에게 책과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청사 내 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구청사 유휴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2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와 시정담벼락

가. 조성개요

경기도 부천시청 1층에 영화전문도서관 판타스틱큐브와 행정정보도서관 시정담벼락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부천시립원미도서관이 직접 실시하고 있다. 2개 도서관 모두 2016년 조성하였으며 특히, 시정담벼락 입구의 도서관 사인은 개관 당시 시장님이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한 점이 특징적이다.

나. 시설

판타스틱큐브는 영화전문도서관으로 409.6㎡의 면적으로 2층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독립상영관이 204㎡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수직형 개방구조로 1층에 카페를 조성하고 중앙에 테이블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으며, 2층에는 영화나 영상물

감상할 수 있는 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시정담벼락은 125.4㎡의 면적으로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타스틱 큐브와는 로비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도서관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서가, 테이블, 조명 등 모든 물품을 사서가 직접 선정하고 배치하여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여 좁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조성 당시 개방형 구조를 고민하였으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냉난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조직과 인력

운영은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자료구입업무도 실시한다. 이에 판타스틱큐브와 시정담벼락에는 원미도서관 소속 상근인력이 각 1명씩 배치되어 대출, 반납, 상호대차서비스, 참고서비스, 열람지도 등 대면서비스(public service)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전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라. 장서와 운영프로그램

판타스틱큐브는 2019년 10월 기준 단행본 9,933권, 연속간행물 20종, CD/DVD 887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시정담벼락은 단행본 9,983권, 연속간행물 13종을 소장하고 있다.

판타스틱큐브의 경우, 도서관의 특성에 맞추어 영화관련 전문자료, 예술 및 인문학 도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되 이용자 희망도서도 수집하고 있으며, '이음서재'코너를 조성하여 영화관련 서적을 기증받아 운영하고 있다. 개관당시 시립도서관 내 영화 관련 자료 2,000여 권을 선별하여 이관한 다음 점차적으로 인문학 자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영화전문도서관이지만 인문학자료로 장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라이브러리톡 강연과 기획도서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 관련 행사와 출판기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부천씨앗길센터와 부천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영화예술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BIFAN, 관광콘텐츠과 등과 연계하여 큐브상영관 프로그램 운영도 실시한 바 있다.

판타스틱큐브가 영화전문도서관이라면 시정담벼락은 행정자료와 시청 내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자료 등 시정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도서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2016년 조성 당시 행정전문도서관을 모티브로 하여 기록물을 별도로 보관하되 시정자료/행정자료(행정정보자료)³⁾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출발했으나, 이에

3) 시정담벼락이 제공하는 행정정보자료에는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기술보고서 등 비매출자료, 학술대회·세미나·심포지엄·워크숍·포럼 관련 자료집, 성과사례집, 정책평가 결과보고서, 법령집 및 통계자료, 행사/전시 포스터, 사진자료, 팸플릿, 리플릿, 공공기관 건축도면 등이 포함된다.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지 않아 운영의 방향을 변경하고 일반자료의 비중을 높여 현재는 행정 전문도서관이자 공공도서관 등 2개의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후자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특히, 민원실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편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시정답벼락의 경우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부천시 도서관 회원인 가족을 대상으로 대출권수를 증량해주는 '다둥이가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옆 만화카페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고 있다.

마. 특징과 시사점

판타스틱큐브는 '영화'라는 특화주제로 자료제공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수직형 개방공간으로 조성하고 카페를 두어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도서관 출입이 훨씬 자유롭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정답벼락은 행정정보자료 중심의 도서관으로 출발하였으나 행정정보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청사방문 시민들의 일반적인 자료이용을 1차 목적에 두고 일반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좁은 공간이지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2-3명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사서가 해당 공간을 최대한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어 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테리어가 잘 된 여러 기관을 방문한 다음 공간배치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가. 조성개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 1층에 850㎡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층으로는 지층이지만 청사 앞 광장에서 바로 연결되어 실제로는 지상 1층과 동일한 개념으로, 비전 역시 '누구나 행복과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곳, 광장 북카페'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시설

북카페는 원래 행정정보도서관으로 건립되어 행정자료 서비스를 실시하다가 청사 앞 광장 조성 후 2018년 북카페로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행정정보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점과 청사 내 도서관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의 북카페가 조성된 것이다. 북카페는 중앙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안내데스크를 제외한 주변 모든 공간이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서나 정리업무를 위한 사무공간(보존서고 포함)은 별도의 층에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광장 측으로 설치한 통유리벽을 제외하고 모두 책으로 채워진 북월(book wall),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무대, 키즈존, 수유실, 열람 테이블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다. 열람 테이블은 일반적인 형태도 비치하고 있지만, 서가가 중심에 있고 서가를 둘러싼 형태로 테이블이 연결된 형태도 확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외부를 유리로 제작하여 창측에도 테이블을 두어 이용자들의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대출과 반납은 안내데스크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북카페는 전시공간인 평화토크 홀과 카페가 로비로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전시품 관람과 간단한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조직과 인력

북카페에는 사서 3명과 청사방호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 공공근로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도민 4명이 자원봉사 형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라. 장서와 운영프로그램

개관 당시 장서량 16,000여 책에서 시작하여 2019년 현재 57,092책을 수장하고 있으며, 일반자료 이외 행정정보자료, 큰글자자료, 만화책 등도 소장하고 있다. 만화책과 행정정보자료⁴⁾는 별도의 코너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열람만 허용하고 관외대출은 하지 않는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기증자료도 받고 있으나, 기증에 대한 내용은 성문화하여 도서관 장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하여 장서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의 구입은 도내 지역서점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KISS(한국학술정보), NDSL(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전자자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북카페가 행정정보자료실에서 출발한 만큼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방식의 '경기도메모리 기억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역사를 시대별, 유형별, 지역별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각종 행사를 통해 경기도청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젠가, 루미큐브, 체스, 바둑, 장기, 원카드, 텀블몽키, 메모리 게임 등 보드게임과 지역·정책·경제·여행정보 제공, 화제의 도서, 대상·주제별 추천도서 등 다양한 기획전시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용율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전시의 경우 북카페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작품을 일정기간 전시하기도 하며, 추천도서를 전시할

4) 행정정보자료를 별도의 코너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지 않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경우 도서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함께 전시하여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경기 도사이버도서관이 제작한 1003장의 이야기 카드를 보관한 '기억의 서가'를 운영하였다. 삼국시대 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관련된 모든 문화유산, 놀이문화, 설화·전설, 인물, 명소, 음식 등 모든 정보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야기 카드를 한 장씩 뽑아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독서의욕은 있으나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적 독서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五感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서비스 이외 특화서비스로 매월 1회 휴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문화의 날', 광장과 북카페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체험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 평생교육'과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북카페 북콘서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자료실에서 출발하여 그 기능 역시 중요하므로 경기도의 역사, 정책정보, 각종 문화행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경기도메모리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경기도의 지역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사회·문화기관, 행정기관의 기록물, 3·1운동사·독립운동가 관련 기록물 등 도내 가치 있는 각종 기록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마. 특징과 시사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초기 행정정보도서관에서 개방형 공간 북카페로 확대 개편한 후 회원수가 매우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북카페 내부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존으로 조성하여 가족 단위의 이용자, 학생, 노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켜두고 있어 서로간의 적절한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가 허용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사 앞 광장이 매우 넓게 조성되어 있어 구청이 주관하는 '잔디밭 영화제', '물놀이장', '눈썰매', '스케이트장' 등 행사를 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북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로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기획전시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유지하면서도 일반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다는 점은 꿈+도서관(가칭)의 지향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무공간은 다른 층에 별도의 공간으로 보존서고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꿈+도서관(가칭)의 공간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Ⅲ. 부산시 시민인식과 요구조사

공공도서관 건립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와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인 이용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기 위해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주일동안 연제구 내 공공도서관 2개관 내의 이용자와 부산시청사 방문자와 부산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5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⁵⁾ 이중 공공도서관 경험이 있는 시민은 총 448명(80%), 공공도서관 경험이 없는 시민은 112명(20%)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시민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⁶⁾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용빈도 •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 도서관 방문(편도)에 소요되는 시간 • 도서관 이용목적 •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이유
시청사내 꿈+도서관(가칭) 건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특화 테마 서비스 •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필요공간 •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희망 서비스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최종학력, 연령, 직업, 거주지 등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최종학력, 연령, 직업, 거주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336명(60%),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151명(27%),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286명(51.1%), 거주 지역 별로는 기타가 320명(57.1%)으로 많은 점이 특징적이었다. 거주지역이 연제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시청의 특성상 부산시 전 지역에서 방문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1.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자들의 이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년에 1-2회'가 105명(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가 60명(13.4%), '한달에 2-3회'가 59명(13.2%), '일주일에 2-3회'가 57명(12.7%), '한달에 1회'가 54명(12.1%), '일년에 3-4회'가 52명(11.6%) 등의

5) 지면상 모든 내용을 표로 제시하기 어려워, 중요한 내용은 표로 작성하고 나머지 사항은 표는 생략하고 기술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무응답 인원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6) 이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은 '공공도서관'으로 표기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4.7%(200명)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월 2-3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복수응답) 역시 115명(24.5%)이 연제도서관을, 109명(24.5%)이 연산도서관을, 95명(20%)은 관내 작은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152명(32.3%)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 이용자가 많은 점 역시 시청의 특성상 부산시 전 지역에서 이용자들이 방문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123명(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가 97명(21.7%), '자가용 이용'이 75명(16.7%)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자료(책, DVD 등)를 찾거나 빌리기 위해'가 257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혼자만의 휴식과 힐링을 위해'가 125명(19.2%), '취업/자격/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가 124명(19.1%), '문화 프로그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가 62명(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지만, 도서관 본연의 목적이자 핵심 요소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다는 점은 여타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휴식', '힐링', '문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공공도서관의 트렌드와 향후 공공도서관이 지향할 바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직업별로 사무직과 전문직,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혼자만의 휴식과 힐링을 위해'의 항목에도 응답이 많았다는 점에서,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하고 쉬어갈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은퇴자의 경우 낮 시간을 자신의 감성과 지적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편안하고 의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4명(30.4%),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0명(17.9%), '집이나 직장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명(17.9%),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명(11.6%),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명(4.5%) 등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부산시청이라는 상징적 장소에 도서관이 조성됨으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잠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 그리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좀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꿈+도서관(가칭)에 대한 수요

꿈+도서관(가칭)이 조성되어 운영될 경우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와 공간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희망하는 서비스’,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희망 테마 서비스’,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필요한 공간’ 등에 대해 3개 항목까지 복수응답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시민들이 꿈+도서관(가칭)이 기대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서비스’가 295명(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교양강좌, 독서교실 등) 서비스’ 284명(23.7%), ‘부산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248명(20.7%), ‘이용자(어린이, 청소년, 은퇴자, 노년층, 이주민 등) 맞춤형 서비스’ 202명(16.9%), ‘DVD, 전자책(e-book) 등 풍부한 디지털자료 서비스’ 169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중을 불문하여 모든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제공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하고,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공간에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휴식을 취하며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이 사회적 시설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자료’라는 사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 특히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등을 사용해서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이외 개방형 기술 결과 분석을 통해, 최근 많은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 서비스, 테마 별 신간자료 자료리스트와 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서비스,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필요한 서비스(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비중, %)		
	이용자	비이용자	합계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서비스	248(25.5)	47(20.8)	295(24.6)
DVD, 전자책(e-book) 등 풍부한 디지털자료 서비스	140(14.4)	29(12.8)	169(14.1)
부산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203(20.9)	45(19.9)	248(20.7)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교양강좌, 독서교실 등) 서비스	230(23.7)	54(23.9)	284(23.7)
이용자(어린이, 청소년, 은퇴자, 노년층, 이주민 등) 맞춤형 서비스	151(15.5)	51(22.6)	202(16.9)
합계	972(100)	226(100)	1,198(100.0)

꿈+도서관(가칭) 조성 시 시민들은 어떤 테마를 특화하여 제공하기를 바라는지 조사한 결과, '인문학'이 224명(1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웰빙' 189명(12.8%), '예술(음악/미술)' 176명(11.9%), '문학' 153명(10.4%), '여행' 148명(10.0%), '영화' 139명(9.4%), '부산의 역사와 지역정보' 118명(8.0%), '취업/일자리' 96명(6.5%), '심리/상담' 92명(6.2%), '4차 산업혁명' 75명(5.1%), 실버(노년층) 49명(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사항은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근 이루어진 부산시 사상구 지역주민의견조사(530명 대상)에 의하면, 희망하는 특화서비스가 '인문학' 151명(10.6%), '예술(음악/미술)', '영화' 130명(9.1%), '문학' 128명(9.0%), '진로·취업' 117명(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러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강은영 2020). 이번 조사의 경우 시청 내 도서관 조성이 목적이므로 '부산의 역사와 지역정보'가 포함되는 등 제시한 항목의 차이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두어 자관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특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민들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 기억할 수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특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추세와 시민들의 의견에 발맞추어 꿈+도서관(가칭) 역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테마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되, 도서관 조성 계획단계에서 지향점으로 삼은 취업·창업(일자리)와 행정정보 자료를 주된 특성화주제로 하여 꿈+도서관(가칭)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 3〉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희망 테마서비스(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비중, %)		
	이용자	비이용자	합계
인문학	183(15.3)	41(14.7)	224(15.2)
예술(음악/미술)	146(12.2)	30(10.8)	176(11.9)
건강/웰빙	142(11.9)	47(16.9)	189(12.8)
영화	113(9.4)	26(9.4)	139(9.4)
4차 산업혁명	62(5.2)	13(4.7)	75(5.1)
문학	120(10.0)	33(11.9)	153(10.4)
심리/상담	79(6.6)	13(4.7)	92(6.2)
여행	118(9.9)	30(10.8)	148(10.0)
부산의 역사와 지역정보	101(8.4)	17(6.1)	118(8.0)
취업/일자리	84(7.0)	12(4.3)	96(6.5)
실버(노년층)	35(2.9)	14(5.0)	49(3.3)
기타	13(1.1)	2(0.7)	15(1.0)
합계	1,196(100.0)	282(100.0)	1,516(100.0)

꿈+도서관(가칭) 조성 시 시민들이 희망하는 공간을 조사한 결과, '카페처럼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희망하는 경우가 440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266명(19.8%),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94명(14.4%), '작가, 인문학자, 과학자 등과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 157명(11.7%), '독서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소모임 공간' 130명(9.7%), '대활자본(큰글자책)이나 시력 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노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76명(5.6%), "부산"과 관련된 지역 자료를 제공하고 전시하는 공간' 7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형서점이 카페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시민들은 도서관 역시 이러한 분위기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책만 빌리고 읽는 곳이 아니라 지인들과의 만남 공간, 혼자만의 휴식과 힐링 공간, 전문가들의 강연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개방적인 장소로서의 도서관, 가족들과의 소통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단위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과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금 시끄러워도 되는 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더라도 작게라도 만들어주세요. (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그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마지막으로 꿈+도서관(가칭)이 가장 중요한 특성화 주제로 계획하고 있는 취업·창업(일자리) 정보에 대한 기대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해외 공공도서관의 경우 취업·창업(일자리)나 비즈니스와 같은 시민들의 생계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시민들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공공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추진과제 중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에서 '구직자 대상 서비스 강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1)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2) 인생 이모작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3)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강화 등 3가지 항목을 제안하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국내 공공도서관의 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꿈+도서관(가칭)의 주된 지향점이 취업·창업(일자리) 전문 특화도서관인 만큼, 해당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경기도의 역사, 정책정보, 각종 문화행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경기도메모리'라는 명칭으로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억의 서가’를 조성하여 경기도와 관련된 스토리가 담긴 1,003장의 이야기카드를 보관한 별치서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성화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하여 특성화 주제서비스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표 4〉 꿈+도서관(가칭) 건립 시 필요한 공간(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비중, %)		
	이용자	비이용자	합계
가족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210(19.3)	56(21.8)	266(19.8)
카페처럼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359(33.0)	81(31.5)	440(32.7)
독서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소모임공간	106(9.7)	24(9.3)	130(9.7)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60(14.7)	34(13.2)	194(14.4)
작가, 인문학자, 과학자 등과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	139(12.8)	18(7.0)	157(11.7)
대활자본(큰글자책)이나 시력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노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54(5.0)	22(8.6)	76(5.6)
‘부산’과 관련된 지역자료를 제공하고 전시하는 공간	55(5.1)	16(6.2)	71(5.3)
기타 공간	6(0.6)	6(2.3)	12(0.9)
합계	1,089(100.0)	257(100.0)	1,346(100.0)

IV. 부산시청사 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

현재 연제구 내에는 연산도서관, 연제도서관 등 2개의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4개, 사립작은도서관 8개 등 총 14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의 경우 위치와 존재 여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2개의 공공도서관이 대부분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제구 내 세 번째로 설립될 예정인 꿈+도서관(가칭)은 시청사 내 조성될 계획이지만, 연제구 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내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당 기본계획은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을 기본 토대로 하고 타 청사 내 도서관 사례와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꿈+도서관(가칭) 기본방향(지향점), 조직과 인력, 공간별 업무, 장서개발, 서비스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⁷⁾

7) 꿈+도서관(가칭) 조성은 부산시의 공약사업으로 ‘취업·창업(일자리)정보’와 ‘부산시 발간 시정·행정자료(행정정보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초기 목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꿈+도서관(가칭)의 특성화보다는 일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연제구 내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도 하고 꿈+도서관(가칭)의 특성화 방향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 기본방향

가. 연제구 도서관서비스 체계상 위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체계를 지역대표도서관, 지역중앙관, 거점도서관, 분관,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부산시의 경우 도서관 정책과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2018년 5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자치단체 별 거점도서관을 1개관씩 지정하여 행정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이어 상호 협력거점 도서관, 특성화 자료거점 도서관 등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제구의 경우 현재 지역중앙관이 없고 연제도서관이 거점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꿈⁺도서관(가칭)은 '취업·창업(일자리) 정보'와 '부산시 발간 시정·행정자료(행정정보자료)' 등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부산시 발간 시정·행정자료(행정정보자료)'는 기수집되고 있어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수집과 관리를 이어가도록 하고, '취업·창업(일자리) 정보'를 주된 테마로 지정하여 청사 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명실공히 부산지역 내 취업·창업(일자리) 전문 특성화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향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하는 현대인이 요구하는 도서관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이 제시하는 국가 도서관정책의 4대 전략방향, 즉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은 이러한 변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특히 공공도서관은 문화서비스와 독서프로그램 확대,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강화, 지역주민 네트워크와 지역의 생활문화모임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의 추진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시민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이 꿈⁺도서관(가칭)에 기대하는 바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면의 키워드는 '휴식', '힐링', '인문학', '예술', '문학', '여행', '가족', '열린공간' 등으로 나타난 점과 꿈⁺도서관(가칭)이 특성화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그 지향점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을 통해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개방 공간으로서 '책이 있는 지식공간', 삶의 여유를 느끼며 치유하는 힐링공간으로서 '힐링이 있는 휴식공간', 취업정보와 창업정보 등 일자리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보공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취업정보와 창업정보 등 일자리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보공간'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이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추

진과제 중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강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비스로 꿈⁺도서관(가칭)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2. 조직과 인력

가. 조직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청사 내 도서관 사례 중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성동 책마루 도서관은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도서관은 모두 시청·구청이나 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꿈⁺도서관(가칭)도 시청사 내에 조성되는 도서관이므로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나. 인력

꿈⁺도서관(가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화형 거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도서관 운영팀장 1명, 장서개발·기획서비스 담당 2명, 열람·정보서비스 1명, 행정지원서비스(행정직·전산직) 2명 등 최소한 총 6명의 인력을 제안하며, 자료선정과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자문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첫째, 장서개발·기획서비스 파트에서는 장서개발, 자료조직, 홈페이지운영,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홍보와 대외협력 등의 업무와 함께 현재 시정정보자료실의 일부를 보존서고로 활용하게 되면 행정자료·법령자료와 저이용자료를 해당 서고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열람·정보서비스 파트에서는 자료의 대출과 반납, 독서상담, 계층별 서비스 등의 업무와 함께 특성화서비스인 취업·창업(일자리)자료와 시정자료·행정자료(행정정보자료)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청사 내 일자리 종합센터와의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업무를 위해 1명을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특성화 주제인 취업·창업(일자리)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특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사업이나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은 성동 책마루 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파트타이머의 형태로 여러 이유로 업무경력이 단절된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지원서비스 파트에서는 도서관 일반운영에 대한 행정지원과 시설관리, 전산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공간별 업무

현재 청사 내 3층 시정정보자료실은 꿈⁺도서관(가칭)이 조성될 1층 공간에 비해 시민들의 접근

의 용이성이 떨어지므로, 장서개발(자료의 선정과 구입 등 수서)과 자료조직(자료의 분류와 목록),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Technical service)가 이루어지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부산시 행정업무·시정업무의 지원과 해당자료에 대한 시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자료·시정자료(행정정보자료) 등 부산시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수장하는 공간의 역할과 저이용자료를 수장하는 보존서고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이에 향후 청사 내 1층 로비에 조성될 꿈⁺도서관(가칭)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의 대출과 반납, 질의응답서비스, 독서상담,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계층별 서비스 등 대면서비스(Public service)를 수행하며, 특성화 주제인 ‘취업/창업(일자리)’에 맞추어 부산 내 취업/창업(일자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센터와 연계하여 구직 또는 창업활동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 구분은 성동 책마루도서관과 유사한 형태로 업무공간과 서비스공간이 각각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어 직원들의 불편함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수장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장서개발

꿈⁺도서관(가칭)은 시정정보자료실에 수장된 자료 이외 단행본 기준 30,000권으로 기본장서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시민들이 꿈⁺도서관(가칭) 조성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 주제분야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시민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꿈⁺도서관(가칭)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특성화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취업·창업(일자리) 관련 분야의 자료와 부산시가 발간하는 행정자료와 법령자료 등 행정정보자료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창업(일자리)은 꿈⁺도서관(가칭)의 주된 특성화 주제이므로, 해당 주제의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는 특별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료의 형태에 상관없이 최대한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입 가능한 자료 이외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의 경우, 관련 기관(공공기관 취업정보센터인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일일취업안내소, 부산고용센터(동부센터, 북구센터 포함), 일자리지원기관(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조선업 희망센터) 등)과의 MOU를 체결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화된 자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 구축 사업을 실시하거나 해당자료를 소유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문에 대한 링크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한다.

더불어 성동 책마루 도서관이 지역주민 한명 한명이 간직하고 싶은 책을 기증받아 별도의 코너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판타스틱 큐브가 이음서재 코너를 조성한 사례 그리고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기증 사례를 참고하여, 성문화된 기증정책을 수립한 다음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는 책은 기증받아 별도의 코너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서비스 프로그램

꿈+도서관(가칭)의 경우 부산시청 사 내 조성되어 부산시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므로 일반적인 도서관이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모두 수행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교양강좌나 독서교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청사 내 조성되는 상황에 맞추어 시기별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몇 가지 서비스를 제시하자면, 어린이를 위한 북스타트(Book start), 그림책 원화 전시전과 미술품 전시회,⁸⁾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 상황별·주제별 추천도서목록의 개발과 배포, 자료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한 주제별·시기별·사회적 이슈별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 잔잔한 클래식 위주의 열린 음악회, 작가·인문학자·과학자 초청 강연, 독서토론회, 노년층을 위한 대활자본의 구비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음악회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청 뒤편 녹음광장을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간이 허용될 경우 가족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패밀리 룸(family room)과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꿈+도서관(가칭)의 특성화 분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창업(일자리)'와 '시정·행정(행정정보)' 등 2개로 나누었으나, 계획 초기 '취업·창업(일자리)'를 1차적인 특성화 주제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취업·창업(일자리)을 특성화한 사례로 서울고척도서관, 부산시립사하도서관, 인천중앙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서울고척도서관의 경우,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직무체험 및 여성·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립사하도서관의 경우, 종합자료실 내 자격증관련 도서 및 각종 수험안내

8) 현재 시청 벽면에 전혁립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서,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비치하고 취업자료 서평목록의 정기적 발간, 취업자료 신간도서 목록 매월 제공, 취업관련 특강 매년 개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게시관에 매주 1-2회 구인안내, 취업뉴스, 자격증일정안내, 자격증뉴스, 직업안내 등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중앙도서관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대상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으로 '취업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바 있다. 도서관은 해당 서비스에서 주기관으로 홍보, 인원모집, 장소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전문강사인 직업지도상담사를 지원하여 직업지도상담사와 참가자의 일대일 면담으로 직업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CAP(Carrier Assistant Program)를 실시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만 15세-29세 청년층 대상으로 자기이해, 직업탐험, 직업정보탐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미래비전 설계 등 실습 위주로 이루어진 전문 취업관련 교육 실시하기도 하였다. 강서영어도서관의 경우,⁹⁾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즉, 시민의 자기개발은 자녀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취업연계에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 경력개발 교육 ⇨ 인턴십을 통한 숙련 ⇨ 연구모임과 후속교육 ⇨ 재능기부 프로그램 ⇨ 확산을 통한 취업 지원 등 5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취업 및 사업정보와 같은 지역주민의 생계와 일에 직결되는 정보에 대해 주목하고 비즈니스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공공도서관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공공도서관의 일원이자 세계 정상급의 연구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비즈니스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이자 특화된 서비스로 삼고 있는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관(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 뉴욕주 롱아일랜드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Middle Country Public Library), 뉴저지주 롱브랜치공공도서관(Long Branch Public Library), 매사추세츠주 뉴턴무료도서관(Newton Free Library), 일리노이주 스키키공공도서관(Skokie Public Library) 등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주민의 비즈니스정보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이용재 2013).

일본 시가미하라 시립 하시모토 도서관(Sagamihara Shiritsu Hashimoto Library)의 경우, 2004년부터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창업 무료 상담회와 취업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자리 관련 패스파인더 구축과 비즈니스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별도의 비즈니스 지원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관련 자료 목록과 취업 관련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사서가 비즈니스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자료조사와 상담도 제공한다(하시모토 도서관 홈페이지).

9) 담당자에 의하면, 프로그램 실시 이후 취업현장으로 나간 수강생이 많았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는 매우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데 굉장한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점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필라델피아 Parkway Central Library는 1987년부터 도서관내 Business Resource & Innovation Center(BRIC)를 설치하여 'Workplace'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Workplace'는 구직자들과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탐색 기술을 가르치며, 새로운 고용 분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과 직장예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Parkway Central Library 홈페이지).

최근 국내의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 중 청년 실업 문제, 한국 베이비부머(베이비 붐 세대)·조기 은퇴자의 재취업과 사업 그리고 노년층의 생계 문제 등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를 엄선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제주도와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별로 '창업마을' 조성이 진행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사업공모와의 연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창업마을'은 창업주체들이 열린 광장에서 교류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21세기형 창업단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3-4곳의 지자체에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19). 이는 최근 정부의 '일자리가 성공이고 복지이다'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과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해외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와 비즈니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시도하거나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꿈+도서관(가칭)에서 기존 일자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센터는 공간과 기 구축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도서관은 자료, 인적자원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의 형태로 취업·창업(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사례들의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여 꿈+도서관(가칭)은 취업·창업(일자리) 관련 자료의 망라적인 수집과 제공, 취업·창업(일자리) 정보에 대한 키오스크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상에서 관련 자료만 별도로 모아둔 패스파인더 구축, 취업·창업(일자리) 관련 신간자료 목록과 서평자료 발간과 제공, 관련 정보나 자료가 입수되었을 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알림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방법·면접방법·직장예절에 대한 강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상담회와 세미나 개최, 직업지도상담사와 취업·창업(일자리) 희망자의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직업관련 상담 등을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존속하게 될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꿈+도서관(가칭)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일조하면서도,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등에게도 매우 유용한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 론

현재 부산시 연제구에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이 2개관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낮은 편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산시는 지역중앙관 외의 기초자치단체 별 거점도서관을 1개관씩 지정하여 행정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이어 상호 협력거점 도서관, 특성화 자료거점 도서관 등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연제구에는 지역중앙관이 없고 연제도서관이 거점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꿈⁺도서관(가칭)은 ‘취업·창업(일자리)정보’와 ‘시정·행정자료(행정정보자료)’ 등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시민들이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꿈⁺도서관(가칭)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정정보자료실과 연계하여 꿈⁺도서관(가칭)을 조성하는 이 계획은 부산시청사 내 도서관 규모와 기능을 확장하여 시청이라는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도서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경우 행정정보도서관으로 건립되어 행정자료 서비스를 실시하다가 시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지금의 북카페로 변경한 점과 성동구청 시정담벼락의 경우 행정정보도서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일반 공공도서관 기능을 대폭 확장한 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공공청사의 1층 공간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만, 꿈⁺도서관(가칭)이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취업·창업(일자리)정보’와 ‘시정·행정자료(행정정보자료)’ 등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원과 자료를 투입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연구가 향후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과정에서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꿈⁺도서관(가칭)이 조성된 이후 지역중앙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권역 별 거점도서관의 건립으로 연제구의 활발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강은영. 2020.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 부산시 사상구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79-104.

- 고재민, 임호균. 2012.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11(5): 43-56.
-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 국립중앙도서관. 2017. 『2017 도서관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영석. 2014. 복합용도건축물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395-414.
- 노영희, 김윤정.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3-50.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류태현, 고재민, 임채진. 2013.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11): 141-149.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부산시청 홈페이지(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nbtnews/618049?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인용 2019. 3. 12].
- 서동훈, 임호균. 2014. 국내 공공도서관 복합화 경향에 대한 연구 - 지역별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47: 112-119.
- 신영지, 노영희. 2020.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프로그램 구성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89-114.
- 이용재. 2013. 공공도서관 취업·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211-23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19. 『국내·외 창업클러스터 현황과 시사점』. 대전: 창업진흥원.
- 최문정, 서은경. 2016. 서울소재 복합시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인식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4): 77-101.
- 최준혁. 2019. 복합화 시설 경향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전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전시디자인연구』, 16(1): 5-16.
- Parkway Central Library Home Page (Business Resource and Innovation Center).
〈<https://libwww.freelibrary.org/programs/bric/>〉 [인용 2020. 8. 2].
- 橋本図書館 (Sagamihara City Library) Home Page.
〈<https://www.lib.sagamihara.kanagawa.jp/toshow/html/BusinessSupport.html>〉 [인용 2020. 8. 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usan Metropolitan City Homepage (Busan news) Press release).

〈<https://www.busan.go.kr/nbtnews/618049?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cited 2019. 3. 12].

Choi, Jun-Hyuck, 201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Exhibition Area in Public Library." *Korean Society of Exhibition Design Studies*, 16(1): 5-16.

Choi, Mun-Jung and Eun-Gyoung Seo. 2016.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Public Libraries in Complex Facilities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77-101.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3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d Plan (2019-202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Kang, Eun-Yeong. 2020. "A Study on User's Perception Survey for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ies: Focused on Sasanggu i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79-104.

Kim, Young-Seok, 2014.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y in Mixed-Use Complex: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395-414.

Ko, Jae-Min and Ho-Kyun Lim. 2012. "A Study on the Complex Trend of Domestic Public Libraries." *Society of Design Convergence*, 11(5): 43-56.

Kwak, Seung-Jin, Young-Hee Noh, and Jae-Min Shin. 2017.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Library as a Multi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Lee, Yong-Jae. 2013. "A Study on Providing Business Information of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 Public Libraries of US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211-23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y*.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SMEs and Startuos,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9.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Startup Clusters*. Daejeon: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7. *2017 Case Study and Thesis on Library Advancemen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oh, Young-Hee and Yoon-Jeong Kim. 2019. "A Study on the User Recognition of Library Complex Culture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23-50.
- Ruy, Tae-Hyun, Jae-Min Ko, and Che-Zin Lim. 2013.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by Complexation Typ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9(11): 141-149.
- Seo, Dong-Hoon and Ho-Kyun Lim. 2014. "A Study on the Complex Trend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Focus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Serial*, 47: 112-119.
- Shin, Young-ji and Young-hee Noh. 2020. "A Study on the Program Structure and Activation Plan of the Complex Cultural Space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89-114.

